

第10次 ECAFE 電力分科委員會 參席報告

(1966. 9. 9~9. 16. 於 마나라)

韓國電力株式會社 金 鍾 珠
理事·技術部長

今般會議의 內容을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1. 會議名稱：ECAFE 第10次 電力分科委員會

2. 會議期間 및 場所：

期間·1966年 9月 9일부터 16일까지 8日間

場所·比律賓國 首都 마나라

3. 參加國 및 參加人員：

<會員國>

瀛州(2人)·自由中國(3人)·佛國(3人)·이란(1人)
·日本(7人)·韓國(2人)·라오스(1人)·마레이지
아(3人)·比國(17人)·越南(2人)·싱가폴(4人)·
泰國(2人)·蘇聯(3人)·美國(2人)

<其他 參加國 및 機關>

西獨(2人)·UNDP(1人)·FAO(2人)·IAEA
(1人)·ICFTU(1人)·WPC(1人)·ICC(2人)

4. 韓國代表：

代表·商工部 建設課長 朴 鍾 泰
交替代表·韓電 理事 金 鍾 珠

5. 議案：

- (1) 議長 및 副議長 選出.
- (2) ECAFE地域의 電力現況과 開發計劃에 對
한 報告.
- (3) 亞細亞 및 極東의 工業化에 미치는 電力의
役割과 應用에 關한 作業班 報告書가 建議한
事項의 審議와 그 執行方案.
- (4) 火力發電所의 建設費 및 運轉費 研究.
- (5) 電力分野에 있어서의 投資事業 選定基準.
- (6) 에너지資源 調査.
- (7) 農村電化促進策.
- (8) 水力發電所 貯水池流域 保護管理.
- (9) 海水脫鹽과 動力使用.
- (10) 本 分科委員會 名稱變更 및 亞細亞動力會

議 創設.

(本 議案은 豫定 議案에는 없었으나 比國代表가 會
議 途中 動議한 것임.)

(11) 次期 會議의 場所 및 時期.

6. ECAFE 事務局 또는 會員國에서 提出한 資料：

58件

韓國에서 提出한 資料：3件

- (1) 電力事業의 現況과 動力資源.
- (2) 農村電化事業의 現況과 展望.
- (3) 高電壓配電의 經濟性.

以上과 같은 會議 內容에 따라 8日間 進行된 會議
의 雰囲気과 討議內容, 會議時間 外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날짜 順序로 생각나는대로 써보기로
한다.

<9月 8日>

商工部 朴課長과 같이 마나라空港에 到着한 것은
9月 8日 下午 3時 30分 頃이었다. “ECAFE”라는 票
를 가슴에 단 男子 두분과 女大生으로 보이는 案內
員 5~6名이 歡迎해 주었다. 入國手續을 그들이 맡
아서 해주었고 稅關檢査는 없었다. 豫約된 호텔 필
리피나스(Filipinas)까지 “ECAFE”라는 標識을 단
車로 女子案內員이 案内해 주었다. 學生이냐고 물었
더니 卒業生이라는 對答이다. 호텔에 查·인하고 大
使館에 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時間이 너무 늦었다.
會議가 來日부터 始作되는데 事前에 大使館과 打合
할 時間도 얻지 못한 셈이다. 만 나라 代表들은 會議
始作 前前날인 어제 到着한 분도 많은 모양이었다.
亦是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主催國인 필리핀政府에서는 各國代表에게 專用車
를 한臺씩 配當해 주었다. 우리가 配當받은 車는

“ECAFE 134”이었다. 옆에 公用車(For Official Use)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 차를 타고 會議場인 國立科學開發廳 科學館(National Science Development Board, Science Pavillion)에 가서 登錄을 하고 많은 프린트를 받아 왔다. 호텔에서 차로 不過 5分 程度의 距離였다.

물시 무덤다. 벌써 땀겨나 흘렸다. 簡單히 沐浴을 하고 朴課長과 같이 來日 스케줄을 본 다음 저녁 食事を 하러 나왔다. 韓國을 떠난 것이 바로 어제(7日) 이진단. 발은 自然히 韓國食堂 “케이스·하우스”(KAY's House)로 向한다. 이 食堂은 金氏(K), 安氏(A), 유氏(Y) 세 韓國婦人이 共同經營하기 때문에 세분의 이름을 따서 KAY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다. 豆腐국, 김치, 불고기를 시켰다. 食事を 마친 뒤 오늘은 探索戰도 하지 않고 일찍 자기로 하였다. 나는 이곳이 두번째이기 때문에 내가 先輩然하게 되었다.

<9月 9日>

會議 첫날. 9時 30분에 會員國 國旗揭揚式. 10時 開會. 어제 大使館과 連絡을 取하지 못했기에 오는 아침에 電話로 連絡을 하였다. 張 二等書記官이 擔當이시라 開會 直前に 會議場에서 만나기로 約束이 되었다. 會議場에는 9時 27分 頃 到着하였다. 國旗揭揚式이 곧 始作되었다. 奏樂. UN旗가 먼저 ECAFE 鐵工業局長 메논(Menon)氏에 依하여 揭揚되고 다음 알파벳 順序로 Afghanistan, China,……Japan, Korea, Iran,……USA, USSR로 끝났다. 各國 代表가 필리핀 國軍 한사람의 助力을 받아 自己나라 旗를 揭揚하였다. 獨立國民의 感激과 나라 代表로 은 重責을 느꼈다.

10時 正刻 會議場에 入場. 大使館에서 오신 張 書記官과 打습을 마치고 韓國代表席에 앉았다. 代表席은 圓形으로 2레이고 議長席 뒤에는 UN旗와 필리핀 國旗가 붙어 있었다. 會議는 필리핀 商工長官 발라바트(Balatbat)氏의 開會辭와 各國 代表에 對한 歡迎辭로 始作되었다. 그는 開會辭에서 低廉한 料金の 豊富한 電氣는 工業發展에 무엇보다도 重要한 要素이며 電力開發은 또한 雇傭增大와 生活水準 向上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有益한 波及效果를 가져 온다는 點을 強調하였다.

今般 電力分委가 會員國 全體에 大端히 有益하다는 것이 證明될 것이며 필리핀에서는 1951年 以來 電力設備容量은 5倍 以上으로 增加하였고 政府는 電源開發과 農村電化를 爲하여 온갖 努力을 다하였으

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力說했다. 발라바트 長官은 또한 아직도 開發途上에 있는 會員國은 大部分 大同小異한 處地에 있으며 世界人口의 40%를 가지고 있는 ECAFE 地域은 世界 電力消費量의 7.5% 밖에 消費하지 못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今般 會議에서의 眞摯한 討議 結果 開發速度를 加速하는 좋은 方案이 模索되기를 바란다라고 雄辯을 뱉었다. 그의 流暢한 英語와 雄辯에는 모두 魅惑된듯 하였다. 다음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參席못한 ECAFE 事務總長 우눈(U Nyun)氏의 開會辭를 ECAFE 鐵工業局長 메논氏가 代讀하였다. 우눈氏는 그의 開會辭에서 各國 代表를 歡迎하고 主催國인 필리핀 政府와 特別히 이 자리에 直接 나와 演說하여 주신 商工長官께 謝意를 表한 다음 各國 代表의 眞摯한 討議에 依하여 ECAFE 地域에 豊富한 電力供給이 早速히 이룩될 수 있는 좋은 方案이 發見되기를 바란다라고 強調하고 系統的이고 綿密한 動力資源調查가 最善의 長期電源開發計劃 作成에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點, 發電所 建設은 充分



(會議場所인 國立科學開發廳 科學館 앞에서 筆者와 濠洲代表.)

히 미리 始作하여 供給에 支障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長期電力需要想定이 重要하다는 點, 昨年이 會員國에서 差出된 專門家들로 構成된 工業化에 미치는 電力의 役割에 關한 作業班의 활동한 報告書에서 指摘한 여러가지 建議을 想起시키면서 이들 建議을 施行하는 問題도 이번 會議에서 討議되는 것이 좋겠다는 點 等에 言及하였다. 이 외에도 農村 電化는 各 會員國의 眞摯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 進展이 滿足할 速度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번 會議에서도 이 問題가 充分히 討議되기 바란다는 點과 其他 今般 會議 議題로 豫想되는 問題에 對하여 일일이 言及하였다.

11時에는 필리핀 商工長官이 代表들과 만나기 爲한 리셉션이 있었다. 會議場 옆에 있는 라운지에서 商工長官과 握手한 後 서로 이야기하며 茶를 마시는 티이·타임을 兼한 時間이었다.

約 15分後 다시 會議場에 모여서 필리핀政府에 對한 感謝의 뜻을 表하자는 마레이지아代表의 動議에 對하여 日本代表의 贊成演說이 있고 그 다음 韓國을 代表하여 筆者가 演說을 하였다.

『臨時議長 메논氏, 商工長官 閣下, 尊敬하는 會員國 代表 여러분, 필리핀政府와 其他 이 會議의 準備에 受苦하신 필리핀電力會社 幹部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의 感謝를 드리고자 합니다. ECAFE 地域의 電力需要가 一般的으로 歐美諸國에 比하여 急激히 增加하고 있으며 一例로 韓國의 경우는 지난 5年間 平均成長率은 19.5%로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來년에는 그 發電施設容量도 100萬Kw를 超過할 것이 豫想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會員國의 直接 間接의 協助의 德分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故로 이 會議을 主催하여 주신 필리핀政府에 對하여 感謝의 뜻을 表하자면 두분 代表의 提議를 全幅의으로 支持하며 이 會議가 많은 成果를 가지고 成功的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라는 內容의 發言을 議長席 옆에 있는 發言臺에 나가서 했다.

事實은 開會場에 到着하자 ECAFE 事務局 職員이 와서 필리핀政府에 對한 謝意表明 動議가 있으면 세 번째로 贊成發言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기에 應諾한 바 있었으나 發言臺에 나가서 張皇한 演說을 할 생각은 勿論 없었고 앉은 자리에서 『贊成입니다』程度의 發言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 動議者와 다음 再唱者가 發言臺에 나가서 本格的인 演說을 하기에 不得已 나도 나가서 아무 準備도 없이 約 5分의 時間을 메꾸느라고 말을 뱉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原則인지 또는 내가 當初 생각한대로 앉은 자리에서 發言하고 마는 것이 옳은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음에는 議長과 副議長 選出에 들어갔다. 議長에는 慣例에 依하여 필리핀代表 모레노(Moreno)氏가, 第1副議長에는 泰國代表 니딘난다나(Nidhinandana)氏, 第2副議長에는 이란代表 라마니(Rahmani)氏가 各各 選出되었다. 第2副議長 選出에는 韓國에서 再請을 하였다. 미리 事務局에서 마련한 씨나리오대로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새로 選出된 議長이 議長席으로 올라가서 司會를 보게 되었고 그 左右에는 事務局의 메논氏와 電力課長 타가반氏が 앉았다. 먼저 會議時間을 午前 9時부터 12時까지와 午後 2時半부터 5時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議長의 提議를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午前會議를 끝마쳤다.

午後會議에서는 議案採擇에 이어 第1議案인 各國의 電力事情紹介가 있어 우리도 韓國의 電力事業現況과 그 開發計劃에 關하여 報告하였다.

저녁食事は 商工長官 발라바트氏 夫妻가 招待하였다. 우리 柳大使께서도 參席하여 주셨다. 食事後 民俗舞踊이 있어 滋味있게 보았다. 民俗舞踊이라고는 하지만 필리핀의 獨特한 것은 別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스페인의 古典舞踊을 보는 느낌이였다. 마나라에서의 이틀째 저녁도 조용히 지냈다.

<9月 10~11日>

10日(土曜日)과 11日(日曜日)을 利用하여 루손島 中部 高原地帶(海拔 5,000피트)의 바귀오(Baguio)라는 避暑地로 가서 하루 밤을 지내고 오는 스케줄로 되어 있다. 그 近處에는 두 水力發電所—암부크라오(Ambuklao)와 빙가(Binga)가 있으므로 이것을 보는 것이 主目的이며 歸路에는 現在 建設이 竣工段階에 있는 218,000Kw의 大規模 水力發電所 안가트(Angat)도 보도록 되어 있다.

午前 6時 出發. 틸틸이 버스(確實히 우리나라 國産보다 못하다.)를 타고 하루 終日(約 7時間) 달려서 암부크라오 水力發電所(75,000Kw)에 到着한 것은 午後 5時半 頃이었다. 뎀은 어스와 록필, 뎀 높이는 129m, 뎀 길이는 452m, 록필·뎀으로서는 極東에서 第

一의 規模라는 이야기. 地下發電所로서 落差 120m, 터널이 5個, 길이 合計 4Km 假量, 總 建設費 132, 000, 000페소 (當時 換率로 約 60, 000, 000弗), kw 當 約 800弗이나 되는 高價의 發電所임을 알 수 있다. 外貨는 美國 輸出入銀行 借款이고 內資는 필리핀 中央銀行에서 融資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936年 以來 竣工까지 許多한 難關과 迂餘曲折을 겪은 模樣이었다.

너무 늦어서 빙가水力發電所에는 가보지 못하고 파인스(Pines)·호텔에 到着한 것이 벌써 어둡기 始作한 午後 6時半이 지나서였다. 이 파인스·호텔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으며 언제 지은 것이냐고 물어 보고 물었더니 14年前이라는 對答이었다. 水力發電所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重要한 施設物은 亦是 이 나라 獨立後에 이루어진 것 같다. 點心을 잘먹기는 했지만 7시가 지나서 배가 고프기 始作하는데 저녁 食事 連絡이 없다. 또 한대의 巴士는 빙가發電所까지 보고 오느라고 늦는 模樣이고 마니라에서 女子 案內員들이 到着하는대로 食事を 始作한다는 이야기였다. 食事할 때 한 테이블에 女子 한사람씩 앉게 할 計劃인 것이었다. 이번 旅行을 招待한 필리핀 電力公社의 周到한 準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이 끝난 것이 10時半 頃이었는데 에너지의 發散이 必要한 몇몇 分은 남아서 춤을 추며 즐긴 모양이었으나 筆者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9月 11日(日曜日)은 8時頃에 朝飯을 마치고



(開會 直前 會議室 韓國代表席에서 朴鍾泰代表<左>, 大使館 張書記官<中央>과 筆者<右>가 打合하고 있다.)

고 바키오 觀光. 옛날 南方에서는 強者일수록 高地 帶에 살고 弱者일수록 濕하고 더운 低地帶에서 살았다는 記錄을 본 일이 있는데 이곳에 와 보면 現在도 이러한 傾向은 마참가지가 야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歐羅巴 어느 避暑地에 못지 않는 훌륭한 避暑村을 이루고 있었다. 9時 頃 바키오 出發. 또한 번 틸틸이 巴士에 시달리며 마니라로 向하였다.

歸路에 마니라에서 58Km 東北쪽에 있는 안가트水力發電所(218, 000Kw) 建設現場에 到着한 것은 午後 6時가 다 되어서였다. 이 프로젝트는 1937년부터 調査가 始作되었으나 實際로 일이 始作된 것은 1958年부터이고 1961年 11月 世界銀行(IBRD)에서 3, 400萬弗의 借款이 承認되어 建設은 本軌道에 올랐다고 한다. 이 工事は 또한 電力生産 以外에 3萬헥타르의 農地에 對한 灌溉와 日間 5億 가론의 用水를 마니라市에 供給하는 多目的의 工事が기도 하다. 內資는 債券發行과 電力公社의 自家留保金으로 充當하고 政府上下水道局(Natioanal Waterworks and Sewerage Authority)에서도 2, 150萬페소(3.9페소=1弗)를 負擔하고 있다. 이 發電所의 概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流域面積 568Km²
- 最大洪水量(實績) 3, 300cm³/sec
- 設計洪水量 5, 800cm³/sec
- 貯水池크기 長 30Km, 幅 3Km(가장 넓은 部分), 滿水時 面積 23Km²

- 滿水位 217m
- 댐 (목펠·댐)
 - 高 131m
 - 長 568m
 - 幅(가장 넓은 곳) 550m
 - 體積 7, 000, 000m³

○ 發電所
主發電所는 地下에 있고 길이 77m, 넓이 24m, 깊이 37m의 地下空間에 垂直軸 水車發電機 50, 000Kw × 4. 放水는 12Km 下流(直線 放水터널 距離 1.7Km)에 放水됨.

補助發電所는 主發電所 바로 옆에 地上에 位置하고 있으며 用水供給을 爲하여 바

배放水路에放水되도록 되어 있음. 垂直軸 水車發電機 6,000Kw×3.

이 水力發電所의 建設工事は 1962年 12月에 自國을 包含하여 國際入札에 付하여졌는데 그 結果와 電力公社의 豫定價格은 다음과 같다.

1. Paul Hardeman(필리핀) 72,900,287.29 페소
2. Civil Works Engineers, Inc.(USA)

95,777,999.00 페소

3. Contractor's Pacific Corp. (USA)

111,885,825.00 페소

4. 電力公社 豫定價格 90,908,963.00 페소

1963年 2月 20日 필리핀建設業者인 Paul Hardeman과 72,900,287.29 페소로 契約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2年 4個月 建設工事が 進行되는 동안 2件의 落盤事故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難關을 겪고 總工程의 54%를 一段落으로 1965年 6月30日 兩者 協議下에 解約되었다. 그後 電力公社의 豫定價格 內에서 殘餘工事を 完了하겠다는 提案을 필리핀 建設業者인 Filipino Engineers Syndicate와 美國 建設業者인 Western States Consulting Engineers 兩者로부터 받고 필리핀 建設業者 FESI와 1965年 8月 20日 契約을 締結하고 1967年 7月 竣工을 目標로 建設工事が 再開되었다. 現在로는 豫定대로 工事が 잘 進行되고 있다고 한다. 이 工事 亦是 적지 않은 迂餘曲折을 겪었으나 이제 竣工을 目前에 두고 熱心히 일하고 있으며 암부크라오水力發電所에 比하여 越等低廉한 建設費(約 262弗/Kw)도 자랑하고 있었다.

車中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機會가 있었는데 그 中에서도 記憶에 남는 것은 이 나라에서도 技術者 確保問題가 深刻하다는 이야기였다. 長官 俸給이 月 1,000페소, 國會議員이 800페소인데 電力公社의 電氣技師長 月給이 1,800페소나 된다고 한다. 即 그만큼 技術者를 優待하고 있는데도 有能한 技術者가 美國으로 건너가 돌아오지 않는 例가 許多하다고 한다. 特히 이 나라는 누구나가 英語를 잘 하기 때문에 有能한 엔지니어가 收入이 좋은 美國으로 팔려가는 傾向이 甚한 模樣이다. 그리고 建設工事擔當者보고 勞動者의 最低賃金を 물었더니 日當 6페소(約 420원)라는 이야기였다.

이곳에서 저녁을 待接받고 시골길을 한時間半 동안 달려서 마니라에 到着한 것은 9時半이 지나서였다. 몹시 疲困한 하루였으나 얻은 것도 많은 하루였다.

<9月 12日>

9月 12日, 月曜日.

이곳에 到着後 비는 每日 조금씩 오다가 마다가 하여 不便한 點도 있었으나 몹시 덜지 않아 좋았다.

午前에는 各國의 電力事情과 開發計劃의 紹介가 前週 金曜日 午後에 이어 繼續되었으며 點心은 마니라電力會社(民間發送配電會社)가 市內에 있는 록웰(Rockwell)火力發電所로 招待하였다. 더어빈發電機 8台, 33萬Kw의 大容量 火力發電所이다.

午後에는 “亞細亞 및 極東의 工業化에 있어서의 電力의 應用과 役割”이라는 專問家作業班이 作成한 報告書(1965年 7月 亞細亞 各國에서 差出된 10名의 專問家에 依하여 방북에서 作成된 것으로서 筆者도 이에 參與하였다.)의 採擇 與否와 採擇하는 경우 그 報告에서 建議한 諸般 事項을 어떻게 施行하느냐 하는 問題를 討議하였다. 本分委는 이 報告書가 다른 問題에 對하여 充分히 많은 資料와 統計를 使用하여 徹底히 研究檢討된 훌륭한 報告書임을 是認하였다.

筆者는 이 報告書作成에 參與한 한 사람으로서 發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本 報告書 作成에 參與한 한 사람으로서 本 報告書가 높이 評價되고 會員國 地域의 工業化에 有用함을 本分委에서 認定하여 준데 對하여 感謝와 기쁨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特히 本 報告書 作成에 있어서 ECAFE 事務局의 能率적이고 誠意에 찬 支援의 功이 큰 바 있었다는 것을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저 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라는 內容의 發言을 하였다.

이 報告書에서 取扱한 題目들 中에서 에너지資源 調査, 電力系統의 連繫運轉, 財政政策, 料金政策 등이 特히 重要な 것들이었다.

電力系統의 連繫運轉이 先進國들의 經驗에 비추어 가장 經濟적인 電力供給方案이기는 하나 留意할 것은 電力系統의 運轉과 計劃에 있어서 모든 安全問題—例컨대 過流 및 正常 安定度問題, 過負荷問題 등이 慎重히 檢討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1965年 11月 9日에 美國 東北部地方을 襲은 電力系統事故를 想起하며 電力系統問題 研究에 있어서 交流計算機와 電子計算機 使用의 緊要성이 強調되었다. 따라서 本分委는 作業班 報告書에서 推薦한 바와 같이 電力系統의 運轉과 現代式 電力機器의 使用方法에 關한 訓練施設이 마련되기를 提議하였다.



(主催國인 比國政府에 對하여 筆者가 感謝의 뜻을 表하는 發言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作業班 報告書에서 建議한 財政의 支援에 關하여 論議한 바 電力事業體에 對하여는 措置期間 5年, 償還期間 20年 乃至 25年の 長期, 低利 借款 供與가 所望스럽다는 것을 再確認하였다. 이것은 電力事業體는 需用家가 願하면 어느 때를 莫論하고 充分한 電力을 供給할 一次의인 責任이 있으며 이 責務를 遂行하려면 發送配電施設의 擴張을 爲한 資金 獲得이 무엇보다도 緊要하기 때문이다. 또한 有利한 長期低利借款을 얻으려면 事業體의 堅實性이 立證되어야 하므로 電力料金は 電力事業遂行에 所要되는 모든 經營費를 回收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施設擴張에 必要한 資金 中의 適切한 部分을 分擔하는데도 充分한 收入을 保障할 수 있도록 料金表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認定하였다.

近來 ECAFE地域의 많은 會員國들이 油類專燒의 大容量 發電所를 建設하고 있는데 硫黃分 含有量이 많은 油類를 使用하는 경우 空氣汚染問題가 深刻해질 것이 豫想되므로 事務局에서는 ECAFE地域 內外를 莫論하고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고 있는지 實例를 調査하여 좋은 方案을 提示해 주기 바란다는 點도 論議, 合議되었다.

또한 地域內의 많은 發電所가 방카 C油를 主燃料로 때고 있는데 原油를 때는 것이 더욱 經濟的이 아니겠느냐 하는 問題도 事務局에서 調査研究하는 것이 좋겠다는 提議도 있었다. 國內에 精油工場이 있는 경우에는 방카 C油를 國內에서 얻을 수 있으나 방카 C油는 砒素린, 키로신 등의 副産物로 生産되기 때문

에 生産量에 制限을 받기 쉽다. 따라서 精油工場이 國內에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國內에 있더라도 방카 C油를 外國에서 輸入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 原油가 방카 C油에 比하여 熱量面으로나 價格面으로 有利한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事務局에서 外國의 經驗을 調査檢討하여 必要로 하는 會員國에 情報를 提供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다.

火力發電所 建設費 및 輸送費 調査

作業班 報告書에서 建議한 線에 따라 事務局이 作成한 資料를 基礎로 討議하였으며 本 分委는 이 事務局 資料가 有用하다는 것을 認定하고 火力發電所의 建設費가 地方的 條件에 따라 相當히 큰 差異를 나타내므로 各國에서 提示된 데이터가 有用하게 쓰이게 하려면 그 分類를 研究하여 地方條件에 影響을 받는 部分은 分離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意見이 많았다.

相當히 長時間 論議한 끝에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事務局 資料에서 分類한 項目(敷地, 構造物, 汽缶, 터빈發電機, 附屬電氣機器, 雜資材機器)外에 (a) 附帶道路와 輸送費 項目을 追加하고 (b) 機器의 供給源을 明示하고(BA政策에 依하여 美國에서 購買할 경우 機器 값이 비싸지는 것이 表示되어야 한다는 뜻인듯) (c) 發電所 建設을 屋內式, 屋外式 또는 半屋外式으로 明示하며 (d) 敷地와 基礎地盤條件의 資料 明示 (e) 冷却水供給條件 明示 등을 追加 明示하도록 하였다.

또한 先進國家들의 경우 火力發電單價가 顯著히 低下된 것을 是認하고 會員國들은 自國 火力發電單價와 先進國들의 그것과를 比較分析하여 運轉經營의 節減과 經營合理化에 寄與토록 하는 것이 極히 重要하다는 點이 指摘되었다.

이 問題와 關聯하여 싱가포르에서 舊式 보일러를 技術的으로 改善함으로써 能率을 0.5% 向上하고 燃料消費를 1.5% 節約할 수 있었다는 報告에 興味를 表示하였다. 또한 이 問題와 關聯하여 蘇聯代表는 自國 政府를 代表하여 “電力開發에 있어서의 蘇聯의

經驗”(Experience of USSR on Electric Power Development)에 관한 세미나를 모스크바에서 열고 ECARF地域 電力專門家の 便宜를 爲하여 視察旅行을 準備하겠다는 提議를 19次 工業·天然資源委員會(19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Industry & Natural Resources:1966年 방콕)에서와 22次 委員會(22nd session of the Commission: 1966年 New Delhi)에서 한 바 있으며 本分委에서 이 提議를 再確認한다고 말하였다. 蘇聯代表는 또한 이 세미나와 視察旅行을 1967年 中이나 1968年 初에 가질 것을 提議하였으며 그 準備와 節次에 對한 仔細한 것은 事務局과 相議하여 決定後 全 會員國에 알려줄 것을 約束하였다. 本分委는 또한 會員國 代表와 專門家가 프랑스國에 視察旅行을 할 것과 프랑스에서 開發되고 使用되고 있는 모든 方法과 情報을 提供하겠다는 프랑스代表의 提議를 認定하였다. 프랑스代表 亦是 視察旅行의 組織, 準備 및 節次에 關한 것은 事務局과 相議, 決定하겠다고 提議하였으며 分委는 이를 了解하였다. 本分委는 또한 會員國 技術者와 專門家가 特定한 問題를 調査하기 爲하여 濠洲를 訪問할 수 있는 機會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報告받았다.

下午 5時에 會議가 끝나니 머리가 멍하니 무거웠다. 저녁은 필리핀사람 家庭에 招待되므로 되어 있었다. 나는 獨逸代表, 프랑스代表, 越南代表, 싱가포르代表 등과 같이 醫師 P氏의 家庭으로 갔다. 큰 邸宅에 自家用 自動車도 二臺나 가지고 있는 富者였다. 西歐式 生活樣式을 가지고 있어 別로 필리핀 家庭이라는 獨特한 맛은 없었으며 食事 때 나오는 料理도 洋式料理와 別로 差異가 없어 오히려 失望하였다. 大學에 다닌다는 一男 一女가 있었다. 수줍어하여 같이 食事を 하면서도 別로 이야기가 없었다.

食事後 話題가 戰爭, 平和, 自主獨立 등에 미치고 結局 越南問題에 까지 이르렀다. 醫師인 主人은 微笑만하고 討論에 參加하지 않았으나 夫人은 大端히 熱心이다. 夫人의 主張은 理想論的 平和主義로서 少女의 꿈에 지나지 않아 問題가 되지 않았으나 越南代表의 戰爭直刻無條件中止論에는 若干 놀랐다. 키가 크고 世界에 안가본 데가 없고 特히 亞細亞通이라는 獨逸人이 『오늘 그대로 戰爭을 中止하면 來日 부터 全越南이 共產化할 것인데 어떻게?』하며 反問하였을 때 越南 親舊는 『1939년부터는 日本軍과 싸웠고 1945년부터는 프랑스軍과 싸웠고 1958(?)

年부터는 베트남과 싸우고 있습니다. 37年間 戰爭에 시달린 百姓의 心情을 생각해 보십시오.』하고 쓸쓸한 表情을 지었다. 座中의 모두가 더 이상 越南問題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判斷하였는지 話題는 美術과 音樂 등으로 옮겨갔다. 10時가 지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때 夫人이 조그만 膳物을 하나씩 주었다.

<9月 13日>

9月 13日, 火曜日. 가끔 비.

午前中은 “火力發電所 建設費 및 運轉費”에 關한 討議가 繼續되었다. 發言을 準備하였으나 너무 發言者가 많아 그만 두었다. 點心은 朴課長과 둘이서 中國食堂 北京飯店(Peking House)에서 먹었다.

午後會議는 “電力部門에 있어서의 投資의 選擇基準”(Criteria for the Choice of Investments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에 關한 討議부터 始作되었다. 發電所 建設이 必要할 때 水力發電所, 火力發電所(石炭 또는 重油) 또는 原子力發電所 中 어느 것을 選擇하느냐의 經濟性 比較檢討方法에 關한 討議이다. 事務局 資料가 이 問題를 깊이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廣範圍한 問題點을 網羅하였으며 電力生產手段의 여러가지 代案中 經濟的, 技術的으로 가장 有利한 한가지를 選擇하는 問題는 至極히 複雜하며 一般的인 基準으로는 코스트·베니피트·레이시오(cost benefit ratio: 普通 B/C ratio라고 불리움)가 採擇될 수 있음에 合意하였다. 그러나 이 B/C ratio는 어디까지나 概略的인 判斷의 基準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며 때때로 이것을 正確히 計算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節次에 依하여 電源開發計劃을 作成하는 것이 現在로서는 一般的인 方法으로 認定되었다.

(1) 開發建設되어야 할 事業(project)名을 全部 羅列한다.

(2) 이들 事業들을 組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開發計劃을 作成한다.

(3) 이들 여러가지 開發計劃들 中에서 電力需要를 充足할 수 있고 自資와 借款을 合한 財源調達 可能範圍內에 드는 開發計劃들만을 골라낸다.

(4) 이들 開發計劃들에 對하여 計劃期間 中의 全經費——支拂利子 등을 包含한 固定費와 運轉經費를 合한——를 計算한다. 外換支出經費도 따로 計算하여 參考로 한다.

(5) *끝으로 이들 開發計劃들 中에서 電力需給의 均衡을 이룰 수 있고 計劃期間中 經費가 最小인 것을 골라낸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與件數가 너무나 많고 따라서 代案으로 생각될 수 있는 開發計劃數도 너무 많아서 實際로는 概略의 判斷에 의하여 代案數를 相當히 制限하여야 할 것이라는 點도 認定되었다. 그리고 또한 以上과 같은 事情이기 때문에 長期計劃 樹立에 있어서 電子計算機를 利用하는 것이 計算을 正確히 하고 또 더 많은 代案을 取扱할 수 있어 大端히 有用하다는 것이 認定되었다.

午後 3時 30分 頃 이 問題에 對한 討議를 終結하고 프랑스와 日本이 提供한 記錄映畫를 求景하기로 하였다. 特히 日本이 提供한 黒部川(Kurobegawa) 第4 水力發電所의 建設에 關한 것은 日本의 民俗 舞蹈와 自然美도 사이사이에 나타나게 잘 꾸며져서 모두가 滋味있게 보았으며 土木, 機械, 電氣 各分野에 걸쳐 日本技術의 發展相을 잘 紹介할 수 있는 秀作이었다. 日本代表들이 언제나 느껴오는 語學上의 헛된 것이 이 映畫로 카버되기도 남음이 있어 體面이 선 셈이었다.

저녁에는 필리핀發電所所有者聯合會(島嶼를 비롯한 國內 數百個所의 小規模 發電事業者의 聯合會)가 베포 각메일·파티가 있었으나 書類整理, 來日 討議할 議題에 對한 準備 등으로 參席하지 않았다.



(會議室에서 討議하고 있는 光景. 前列 右端이 朴代表. 그 옆이 筆者.)

<9月 14日>

9月 14日. 水曜日. 비.

오늘은 남은 4個 議案에 對한 討議를 끝내고 木曜日과 金曜日에는 報告書(會議錄) 作成과 이에 對한 討議를 끝내기로 合議하였다. 議案과 討議 內容을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動力資源調査(Energy Resources Surveys)

高級 에너지에 該當하는 電力의 生産은 石炭, 石油 및 水力等 一次에너지資源에 依存하여야 하며 이들 一次에너지에 對한 國內資源調査는 大端히 重要한 것이다. 討議는 事務局에서 準備한 資料를 基礎로 하여 進行되었다.

에너지開發事業은 長期의 資本擧措期間이 必要하며 따라서 長期計劃에 依하여 推進되어야 하고 地域內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資源의 種類, 그 開發의 難易, 生産코스트 등 여러 角度에서 長期計劃이 檢討, 成案되어야 하므로 地域이 달라짐에 따라 그 樣相이 相當히 달라져야 한다.

會員國은 이 組織의이고 詳細한 動力資源調査를 爲한 專擔機關(委員會)을 構成할 必要가 있음을 強調하였다. 이 動力資源調査에는 各種 形態의 에너지의 現在와 將來의 需要展望, 現實의인 各種 에너지의 資源調査, 그들의 開發 乃至 採掘의 經濟的 및 技術的 妥當性 調査 등이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作成된 에너지 資源調査는 그 나라의

經濟的 與件의 變動, 各種 에너지源의 價格, 埋藏量의 새로운 調査結果 등을 勘案하여 定期的으로 修正, 補充되어야 할 것이다.

本分委는 事務局에서 作成한 報告書들, 그 中에서도 特히 “詳細한 에너지調査—그 節次의 概要”라는 報告書는 會員國들이 系統的인 에너지資源調査를 組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資料임을 認定하고 이 報告書를 더욱 完全한 것으로 만들어 各 會員國에게 配布하도록 要請하였다.

本分委는 會員國들 中에

서 아직 本 調査를 實施하지 못한 會員國은 本 調査를 優先的으로 取扱할 것과 事務局의 이에 對한 適切한 援助가 있도록 建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에너지資源調査는 會員國 自體로서 必要할 뿐만 아니라 ECFAFE地域 全體로서 調査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地域內의 어떤 나라의 에너지資源이 不足하고 反面 다른 나라의 그것이 남아들이기 때문에 會員國 相互間의 에너지資源의 交流乃至 共同投資에 依한 開發等 相互協助가 研究, 計劃, 實施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本 分委는 이와 같은 會員國 相互間의 協調에 依한 ECFAFE 地域 全體의 에너지資源調査가 앞서 記述한 目的의 達成을 爲하여 大端히 重要함을 認定하고 各 會員國에서 에너지資源에 關한 統計를 蒐集하여 編輯하겠다는 事務局의 提案를 承認하고 各 會員國은 이에 協助할 것을 決議하였다.

農村電化促進策

本 分委는 地域內 農村電化事業의 重要性에 비추어 農村電化問題를 本 分委의 永久的인 議題로 한다는 決議에 따라 地域內 農村電化 現況을 檢討하였다. 그 結果 各 會員國은 農村電化 促進을 爲하여 最善의 努力을 하고 있으며 몇몇 會員國 政府에서는 國庫補助, 低利融資 등 여러가지 方法으로 農村電化를 支援하고 있고 關係 電力事業者는 農村電化에 所要되는 建設資金을 最少로 하기 爲하여 設計와 建設方法의 改善을 積極的으로 努力하고 있음을 認定하였다. 또한 이러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地域內 農村電化의 成果는 濠洲, 自由中國, 日本, 싱가포르 등 몇몇 會員國을 除外하고는 充足할만한 것이 못되었다는 點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本 分委는 또한 農村電化는 國家的인 重要事業이며 政府에서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支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과 特別히 이 事業은 그 初期에 있어서는 政府의 財政의 補助가 不可缺少하다는 點을 強調하였다.

本 分委는 農村에 電氣가 架設되었을 때 農村人口에게 電力使用의 知識을 普及하기 爲하여 電氣機器의 展示場, 技術訓練所 등을 設置하여 電氣가 農村所得 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이 大端히 重要하다는 點도 強調하였다.

本 分委는 會員國 政府의 不充分한 財政能力에 비추어 農村電化에 對한 財政의 補助도 無制限으로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農村電化가 經濟的, 社會的 生活

向上에 미치는 效果를 測定하여 가장 合理的인 線이 決定되어야 할 것이라는 點도 認定하였다. 上記한 여러가지 角度에서 農村電化計劃을 樹立하고 自國政府에서 支援할 수 있는 資金外의 不足分을 外國 또는 國際機關에서 얻도록 努力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水力發電所 貯水池 流域保護

本 分委는 事務局에서 作成한 資料를 大體的으로 認定하고 流域內 山林保護를 잘 하지 않으면 土砂流入量이 普通 豫想하는 量보다 훨씬 커져서 莫大한 投資에 依하여 建設된 貯水池가 못쓰게 될 危險性이 있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本 分委는 이 問題의 圓滿한 解決을 爲하여 電力關係者와 山林關係者와의 現在 以上の 協調가 要望되며 政府의 必要한 行政的 措置 뿐만 아니라 流域保護를 爲한 立法措置도 경우에 따라서는 必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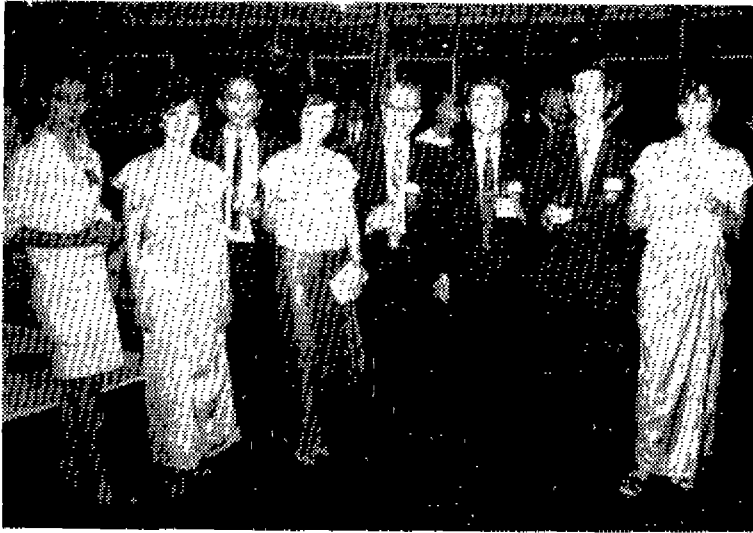
本 分委는 FAO代表가 1968년에 있을 流域管理를 爲한 亞細亞太平洋地域作業班에 水力發電技術者와 水理學者도 招請하겠다고 提議한 것을 認定하였다.

海水脫塩問題

이 問題는 몇몇 會員國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會員國이 當面問題로 重要視하지 않았으며 海水脫塩以前에 天然地表水와 地下水 開發로써 用水不足問題가 解決될 수 있다는 見解였으며 大體的으로 事務局에서 準備한 資料를 받아들일기로 하였다. 特히 우리나라에서는 別로 關心이 없는 問題이기 때문에 이 以上 言及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省略하기로 한다.

強行軍에 依하여 全 議題에 對한 大體的인 討論은 끝나고 來日부터는 事務局에서 準備한 合意報告書 草案을 審議할 豫定이다.

點心은 필리핀原子力委員會의 招請을 받았으며 저녁은 電力公社에서 칵테일과 뷔페(buffet)를 왕왕 골프클럽(Wack Wack Golf and Country Club)에서 待接하였다. 食事が 끝날 무렵 電力公社 職員인 女流 舞蹈家의 民俗舞蹈이 있었다. 大部分의 參加者들이 酒精의 效果로 上氣하였고 좀처럼 헤어질 氣色이 없었다. 電力公社 合唱團의 合唱, 南國의 民俗舞蹈, 스웨덴의 情熱的인 音樂, 熱帶의 시원하고도 달콤한 밤香氣——이 모든 것이 그냥 질잡게 헤어질 수 없게 하는 것 같았다. 모두들 춤을 추고싶은 模樣이나 勇氣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우리 朴課長이 女流 舞蹈家에게 춤을 請하였으며 그녀도 이



(9月 14日 저녁 파티에서, 右로부터 세번째가 筆者.)

것을快히 받아들였다. 왈츠의輕快한 음이始作되고場內는歡呼의拍手로터질듯하였다.너도나도옆에있는색시를붙잡고빙빙돌기始作했다.主催側에서도豫想外の進展을既定事實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模樣이었다.이리하여豫定時間보다훨씬늦게야파티는끝났다.各國代表에게配當된車에는便乘하는아가씨들이눈에떠었다.

<9月 15日>

9月 15日, 木曜日, 비은後 맑음.

9時半에 大使館 訪問. 現在까지의會議進行에關하여報告. 10時半頃會議場所에돌아와報告書草案審議에參加하였다.이외에分委名稱變更및亞細亞動力會議創設에關한필리핀代表의提案과次期會議場所問題가論議決定되었다.

分委名稱變更 및 亞細亞動力會議創設

이提案은필리핀代表에依하여提出되었으며提案內容은本分委의現在名稱인“Sub-committee on Electric Power”(電力分科委員會)를에너지資源이電力產業에가장重要한影嚮을미치기때문에“Sub-committee on Energy Resources”(動力資源分科委員會)로고치고動力問題의亞細亞의特殊性을더욱깊이論議하기爲하여世界動力會議와그地域別分委가있기는하나새로이“Asian Power Conference”를創設하자는것이였다.

필리핀代表의提案說明이끝나도別로意見이나오지않았고논치가그대로通過되는것같아서筆者가

舉手하여發言權을얻었다.比律賓代表의첫째提議即分委名稱變更에對하여는ECAFE傘下에地下資源關係分科委員會가있는것으로아는바그分委와重複될可能性이있는데이問題를事務局에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알고싶으며둘째로當分委의名稱을“動力資源分科委員會”로고치던當分委의重要議題인配電技術關係,農村電化關係其他電力의合理的使用面이等閑視될危險性이있어本人의意見으로는反對하는바이며세계本名稱變

更提案은元來案件에없었기때문에本國政府와事前に打合할수없어韓國代表는今般會議에서는保留하기를바란다고發言하였다.그리고亞細亞動力會議의創設에對하여도이미世界動力會議가있으므로이것과의重複을避하기爲하여“Asian Electric Power Conference”로하여에너지問題中에서도특히電力生産과關聯하여重點의으로論議할수있게하는것이 좋겠다는代案을提示하였다.

本人의發言이있자日本代表,自由中國代表,瀛洲代表가이를支持하는演說을하여주었다.相當한時間에걸쳐事務局에서는豫期치도않던反對發言과折衷案 등이나오자마침時間도커피·부레이크(coffee break)時間이되고하여休憩로들어갔다.休憩時間中에필리핀代表가名稱變更에對한折衷案을가지고와서本人에게相議를하기를“Sub-committee on Energy Resources and Electric Power Development”로하여本分委에서漸漸重要視되고있는動力資源問題를取扱함과同時에電力開發問題와電力使用合理化問題도等閑視되지않게하는것이 좋을것으로생각하는데贊成해줄수없겠느냐는것과“Asian Power Conference”는“Asian Electric Power Conference”로當身代案대로贊成하겠다는이야기였다.

이折衷案의分委名稱에對한註釋에는配電및農村電化等도重要議題로取扱된다는內容이있고

<p. 67로 繼續>

主要한 地域의 地方組織에 建築家에 對한 咨談을 專門으로 하는 建築家連絡事務所를 設置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電力公社의 販賣組織에 있어서의 하나의 特徵이다. 또한 商業用, 工業用, 農業用的 需用家에 對하여는 各 分野에서 電氣使用을 專門으로 다루는 高級職員이 있어 販賣促進과 需用家서비스를 擔當하고 있다.

프랑스의 電氣料金は 「綠料金」의 이름으로 알려진 時間帶別 料金制가 世界的으로 有名하다. 現在 高壓供給에서는 이 綠料금이 一般的으로 適用되고 있다.

이 綠料金에는 電氣不足을 피이크消滅効果에 依하여 克服하고자 하는 意圖가 있었는데 그것에는 그만큼의 效果가 있었던 것이다. 그 後 低壓에 對하여도 綠料金の 趣旨을 導入한 時間帶別 料金制를 採擇하려는 試圖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低壓料金制와 함께 蓄熱暖房, 蓄熱溫水 等の 오프·피이크需要를 開發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나 아

직 큰 成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V. 瑞 西

瑞西의 電氣事業은 公營事業者가 大多數를 占하고 있으며 企業規模는 大體로 작다.

이 나라는 水力電源이 豊富하며 電力使用의 水準이 높다. 그러나 販賣促進에는 그다지 積極的이 아니다. 그 理由는 只今까지는 販賣의 增加는 設備의 效率인 利用과 企業의 合理化를 가져온 原因이 될 수 있었으나 今後의 水力開發은 漸次로 難地點이 되어 原價고가 될 것이 豫想되고 火力發電은 如前히 輸入燃料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事情이 있기 때문이다.

需用家에 對하여는 家事講習會의 開催, 電氣相談, 電氣器具販賣 等の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需用家서비스의 範疇內에 머무르고 있다.

(電氣協會雜誌·1966年 9月號)

<P. 49에서 繼續>

名稱變更 自體가 그렇게 重要한 問題도 아니고 또 이 會議에서 合議하더라도 그것으로 決定되는 것도 아니며 單只 “上位 委員會에 建議할 수 있다”는 程度의 決定이기에 朴課長과 相議하여 贊成해 주기로 約束을 하고 本人이 日本代表, 自由中國代表, 濠洲代表를 만나 諒解를 받았다. 會議가 再開되어 比律賓代表가 原案을 撤回하고 代案을 내자 韓國代表, 自由中國代表, 濠洲代表가 異議없다는 發言을 하여 本分委 名稱을 “Sub-committee on Energy Resources and Electric Power Development”로 變更할 것과 “Asian Electric Power Conference”를 創設할 것을 事務局은 上位 委員會에 上程할 수 있다는 것이 決議되었다.

次期 會議의 場所와 時日

日本은 1968년에 日本서 開催하기를 希望한다는 提議를 하였고 싱가포르는 開催年度에 關係없이 싱가포르에서 開催되기를 希望한다는 提議를 하였다. 本分委는 上記 두 나라의 次期 本分委 招請提案에 對하여 謝意를 表明하고 本分委 開催 場所와 時日의 確定은 事務局이 關係 會員國과 連絡하여 決定하도록 一任하기로 合議하였다.

<9月 16日>

9月16日, 金曜日, 비온 後 맑음.

9시에 會議. 始作. 會議報告書 二讀會. 10時 45分 會議報告書를 修正後 合議, 通過시켰다. 議長이 會員國 代表 여러분들의 中間의 眞摯한 討議와 議事進行에 對한 協調에 感謝한다는 人事를 하고 ECAFE 鑛工局長 메는氏의 閉會辭가 있는 다음 各國 代表의 필리핀政府에 對한 謝意表明 演說이 長時間 繼續됨으로써 會議는 全部 끝났다.

點心은 議長인 比律賓 首席代表 모레노(Hon. Florencio Moreno)氏의 招待로 수루·레스트란(Sulu Restaurant)에서 하였다. 필리핀政府의 商工長官, 電力公社 總裁, 原子力委員會 委員長 等 에너지 및 電力關係 巨物級이 많이 參席하였고 送別宴을 兼해서 誠意를 다한 午餐會였다. 食事中 音樂과 舞蹈 등이 있고 여러 사람의 外交의 辭수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演說 等으로 3時가 지나서야 끝났다. 全 參加 代表에게 좋은 膳物(이곳 名産인 葉煙草)도 있었으며 이 나라에 對한 中間의 誠意에 모두 感謝하였다.

點心이 끝난 後 바로 大使館에 가서 張 書記官과 柳 大使를 모시고 그동안의 여러가지 會議內容과 우리나라와 필리핀과의 經濟問題 等を 이야기할 機會를 가졌다. 大使館에 簡單한 報告書를 넘으로써 이 곳에서 할 일을 모두 끝마쳤다.